

## 1. 머리말

儒敎는 천주교·기독교·불교 등과 같은 종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儒敎는 한반도에 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儒敎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대략 2500년 전 中國 春秋時代에 살았던 孔子로부터 시작된 儒學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으로 남겨졌고, 儒敎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中國에서 발생한 儒敎는 한반도로 유입되어 古代 三國 시대(高句麗·百濟·新羅)를 거쳐 高麗, 朝鮮, 나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儒敎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교가 언제 한반도에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반도에 儒敎가 유입된 시기는 古代 三國 시대(高句麗·百濟·新羅)로 생각되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문헌상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律令 반포가 儒敎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 구체적인 실상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sup>1)</sup>

다행히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에서는 고고학의 중요성이 인식됨과 동시에 출토 유물의 보존처리 기술이 발전했다. 그 결과 木簡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木簡은 종이 귀하던 시절에 종이 대신 나무에 어떠한 내용을 기록해둔 것인데, 그중 論語가 기록되어 있는 木簡도 발견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論語, 나아가 儒敎를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論語가 쓰인 木簡이 작성된 시기는 6~8세기로 추정되며, 부여 쌍북리와 인천 계양산성,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각각 1점씩 발견되었다.<sup>2)</sup> 즉 儒敎가 古代 三國 시대(高句麗·百濟·新羅)부터 사용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늦어도 6~8세기에는 論語를 인지하고 사용했음이 분명하다.

## 2. 儒敎의 등장과 동아시아로의 전파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중국에서는 春秋戰國時代라는 분열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 시기는 무수히 많은 나라가 흥망의 역사를 반복하는 대혼란기였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고자 한 사상가들이 諸子百家이다. 孔子는 諸子百家 중의 한 사람으로, 戰國時代가 오기 전인 春秋時代에 활동한 사상가이다. 孔子가 설파한 사상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었고, 孔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제자가 따랐다.

孔子의 제자들은 孔子의 사상이 널리 퍼지기를 원했다. 다양한 사상과 논리가 공존하며 서로 경쟁하던 春秋戰國時代였던 만큼 그들의 스승인 孔子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孔子의 위

1) 한반도에서는 律令, 교육기관(太學 및 大學), 과거제 실시 등을 가지고 儒敎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林新석기석과 같은 金石文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儒敎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학습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몰라도 古代 三國 시대에는 儒敎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2) 한반도에서는 총 3점의 論語 木簡이 발견되었다. 百濟에서 제작한 論語 木簡은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新羅에서 제작한 論語 木簡은 인천 계양산성과 김해 봉황동에서 발견되었다. 다만 신라에서 제작한 논어 목간이 발견된 지역은 모두 바다와 맞닿아 있어 그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

상이 높아지길 바랐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孔子의 철학을 계승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조금 더 상승하길 바랐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孔子의 제자들은 孔子의 말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전승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문자로 기록했다.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孔子의 말은 기원전 450년경 論語라는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다.<sup>3)</sup> 論語는 四書三經의 하나로,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孔子가 설한 가르침의 요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論語는 儒學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독파해야 하는 책이다.

春秋戰國時代라고 하는 中國의 혼란기 속에서 패권을 다투던 戰國七雄은 각각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통치이념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통치이념을 정립하기 위해 諸子百家의 여러 학파 중 통치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학문을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한 예를 살펴보면 秦의 始皇帝는 法家를 받아들여 국가를 통치했다.<sup>4)</sup> 그런데 은연중에 이들은 통치 사상으로 받아들인 학문 하나에만 심취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학문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法家를 받아들인 秦이 멸망한 후 漢에서 儒家를 수용하였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학문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흥미로운 점은 대략 2500년 전 孔子의 입에서 시작된 儒學, 즉 儒敎는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 온 儒敎가 어떠한 경로로 한반도에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반도에 儒敎가 들어왔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論語 木簡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한반도에 儒敎가 처음 전파된 시점이나 그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古代 論語 木簡이 한반도에서 발견되어 儒敎가 中國에서부터 한반도로 전파·수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木簡에 간단하게 기록된 論語 일지라도 古代 한반도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儒學을 학습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자료가 부족한 韓國 古代史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행운이다.

그렇다면 論語 木簡을 통해 論語가 한반도에 어떠한 형태로 보급되었고, 유통되었는지 살펴보자.

### 3. 中國에서 사용된 論語 編綴簡

中國에서는 1세기 무렵 蔡倫에 의해 종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sup>5)</sup> 하지만 종이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알려졌다고 해도 일반 대중에게까지 종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세기에 만들어진 종이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당나라 시기처럼

3) 『論語』는 총 20개의 篇目으로 구성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편 <學而>, 제2편 <爲政>, 제3편 <八佾>, 제4편 <里仁>, 제5편 <公冶長>, 제6편 <雍也>, 제7편 <述而>, 제8편 <泰伯>, 제9편 <子罕>, 제10편 <鄉黨>, 제11편 <先進>, 제12편 <顏淵>, 제13편 <子路>, 제14편 <憲問>, 제15편 <衛靈公>, 제16편 <季氏>, 제17편 <陽貨>, 제18편 <微子>, 제19편 <子張>, 제20편 <堯曰>이다. 『論語』 木簡을 보면 각 篇의 제목을 내용에 비해 위로 튀어나오도록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각 篇目的 시작과 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4) 秦始皇은 中國 全域을 통일하고 法家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法으로써 국가를 통제하였으며, 도량형·수레바퀴·문자를 통일했다(『史記』 卷2 秦始皇本紀6, “分天下以爲三十六郡, 郡置守尉監. 更名民曰黔首 …… 一法度衡石丈尺, 車同軌. 書同文字”).

5) 1세기 이전에도 소량의 종이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만, 그 연원을 알기 어려우며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가볍고 좋은 재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이가 보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이가 아닌 비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sup>6)</sup> 비단은 가볍지만 매우 비싼 서사 재료였다. 때문에 일반 대중은 값싸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사 재료를 찾아야만 했다. 그 결과 일반 대중이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선택한 서사 재료는 종이가 아닌 나무였다. 즉 서사 재료로 자연 상태의 나무나 대나무를 칼로 깎아 만든 木簡이 널리 사용된 것이다.

木簡이란 나무를 길고 얇게 잘라 평평하게 가공하여 글자를 쓸 수 있도록 만든 서사 재료이다. 그중 대나무를 사용한 것을 竹簡이라고 한다. 종이가 보급되지 않았거나 귀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木簡에 글씨를 썼는데, 종이처럼 木簡도 미리 많이 만들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다. 특히 木簡은 글자나 내용을 잘못 기입했을 때 종이나 비단보다 수정하기가 수월했다. 휴대용 단도(削刀)로 잘못 쓴 부분을 깎아 내고 다시 글자를 수정하면 되기 때문이다.<sup>7)</sup>

이렇게 만들어진 木簡을 여러 개 끈으로 묶어 두루마리 형태로 만든 것이 編綴簡이다.<sup>8)</sup> ‘冊’이라는 漢字는 바로 이처럼 나뭇조각을 編綴해 책으로 만든 編綴簡 형상을 그대로 본뜬 상형문자이다. 이러한 編綴簡은 中國에서 많이 발견된다. 居延漢簡, 燉煌文書 등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編綴簡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編綴簡에는 論語가 기록되기도 했다. 즉 論語를 기록한 뒤 編綴簡 형태의 책으로 만들어 그 지식을 보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編綴簡 형태의 책은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져 中國 全域으로 유통되어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論語 編綴簡은 여러 木簡을 엮어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제작되었다. 木簡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책으로 엮기 힘들고, 편철 과정도 거처도 말끔하게 정리·보관하기 어렵다. 이에 中國 戰國時代에는 2척 4촌, 2척, 1척 2촌, 6촌 등 여러 규격의 編綴簡이 사용되었는데, 秦이 中國을 통일하면서 編綴簡의 길이가 짧아졌다. 이후 漢이 건국되면서 木簡의 길이는 1척(약 23cm)을 기본 규격으로 삼았다. 다만 儒教 輕典이나 관청의 장부 등은 1척 2촌(약 27.6cm)으로 제작되어 木簡의 크기에서 특수성이 부과되었다.

허나 儒教 輕典 중 하나인 論語는 1척 2촌이 아닌 8촌(약 18.4cm)으로 제작되었다. 이것은 휴대하기 쉽게 짧은 길이로 論語 編綴簡을 만듦으로써 論語가 널리 보급되길 원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오늘날 문고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論語 編綴簡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공부했으며, 그 결과 孔子의 가르침은 中國의 정치·철학·윤리 등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사상적 기반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編綴簡으로 제작된 論語는 編綴한 木簡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지고 부피도 커져 휴대가 불편했다. 이에 사람들은 책의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論語의 구절을 篇目별로 기록하거나 자(尺) 형태로 만든 木簡에 論語를 기록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論語를 가까이 두고자 하였다.

6) 중국에서는 비단을 사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을 帛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무와 비단이 동시에 사용된 시기를 簡帛 시기라고 부른다.

7) 한반도의 창원 다호리 유적(기원전 1세기~기원 후 1세기)에서는 붓과 削刀가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文書 行政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1세기 무렵 한반도에 文書 行政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樂浪君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威勢品이 아닐까 생각된다.

8) 나무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하나의 끈으로만 묶을 경우 木簡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編綴簡을 만들 때 2개 이상의 끈(위, 아래)으로 木簡이 묶어 編綴簡이 풀리지 않도록 제작했다.

#### 4. 한반도로 전파된 論語 木簡

法家 사상을 바탕으로 中國 전역을 지배했던 秦이 무너지고 漢이 中國 대륙의 주인이 되면서 中國에서는 다시 儒家 사상이 꽃피기 시작했다. ‘焚書坑儒’로 상징되는 秦始皇의 탄압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은 儒家 사상은 漢 武帝 때 이르러 董仲舒의 건의를 계기로 國敎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中國 전역에서 儒家 사상이 널리 퍼질 무렵 論語는 中國에서 한반도로 전해지게 된다. 그 시기는 다름 아닌 漢 武帝 때이다.

당시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漢은 기원전 108년(武帝 33) 古朝鮮(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네 개의 통치 기관, 이른바 漢四郡(樂浪郡, 臨屯郡, 玄菟郡, 眞蕃郡)을 설치했다. 이를 계기로 中國에서 꽃피운 漢 문화가 한반도에 급속도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論語를 비롯한 儒家의 서적도 함께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平壤 貞栢洞 364호분에서 발견된 論語 竹簡은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sup>9)</sup>

오늘날 平壤에 있는 樂浪 시기의 무덤은 약 400년간 존속했던 樂浪郡의 흔적이다. 특히 平壤市 貞栢洞 樂浪區域에서 수백 기의 樂浪 시기 무덤이 발견됐는데(貞栢洞 고분군), 그중 貞栢洞 364호분에서는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많은 유물과 함께 기원전 1세기 무렵 樂浪 지배층이 사용하던 木簡이 여러 개 발견되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일종의 행정 통계 문서라 할 수 있는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 木簡과 論語가 기록된 竹簡이 바로 그것이다.<sup>10)</sup>

1992년 북한 학계를 통해 처음 보고된 이 論語 竹簡은 그 수량이 120여 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내용이 확인된 것은 44매), 한반도에서 발견된 論語 木簡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sup>11)</sup> 이 竹簡에는 論語의 先進과 顏淵 篇이 竹簡 1매당 대략 20자 내외의 글자로 쓰여 있으며, 編綴簡 방식의 책으로 제작된 흔적이 있다.<sup>12)</sup> 이를 통해 늦어도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한반도에 이미 論語를 비롯한 儒敎 典籍이 보급됐고, 그와 함께 儒敎 문화도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平壤 貞栢洞 364호분에서 발견된 論語 竹簡과 유사한 사례로 1973년 中國 河北省 定州市에서 발견된 論語 竹簡(기원전 55년 제작)이 있다.<sup>13)</sup> 이 竹簡 또한 編綴簡으로 제작됐으

9) 平壤 貞栢洞 364호분에서는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가 기록된 戶口簿 木簡과 함께 論語 竹簡이 발견되어 당시 平壤에서 樂浪郡의 郡縣支配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尹龍九, 2009, 「平壤出土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研究」, 『木簡과 文字』 3, 한국목간학회, pp.264~297). 論語 木簡에 대해서는 1992년 류병홍이 평양시 락랑구역에서 발굴된 나무곽무덤의 유물을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2002년 일본 出雲市에서 진행된 심포지움 자리에서 이 竹簡의 출토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면서 論語 竹簡의 출토를 알게 되었다(이성시·윤용구·김경호, 2009, 「平壤 貞栢洞364號墳출토 竹簡 『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p.130).

10) 이 木簡은 2006년 북한의 학자인 손영종이 자신의 논문 속에 木簡의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을(손영종, 2006, 「낙랑군 남부지역(후의 대방군지역)의 위치 - ‘락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다소□□’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198 ; 손영종, 「료동지방 전한 군현들의 위치와 그후의 변천(1)」, 『역사과학』 199) 윤용구가 복원·정리하여 국내 학계에 소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윤용구, 2007, 「새로 발견된 낙랑목간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韓國古代史研究』 46, 한국고대사학회).

11) 論語 竹簡의 사진은 현재 伊藤利光이 원색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며, 鶴間和幸가 흑백사진 일부(앨범 2책)를, 나머지 흑백사진은 大阪市 거주 연구자가 보관하고 있다. 2003년 사회과학원에서 伊藤利光에게 위탁한 사진이 일본의 3개소에 분산되어 있다(이성시·윤용구·김경호, 2009, 「平壤 貞栢洞364號墳출토 竹簡 『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p.133).

12) 해당 論語 竹簡이 編綴簡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공백 때문이다. 공백없이 글자를 써서 編綴을 하게 되면 끈에 의해 글자가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끈으로 묶는 부분에 글자를 쓰지 않았던 것이다. 또 論語 竹簡이 모두 동일한 위치에 공백을 보이므로 編綴되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며, 죽간 1매에는 대략 19~21자가 적혀있다.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기입 방식에서도 平壤 貞栢洞에서 발견된 것과 매우 유사하다. 定州市에서 발견된 論語 編綴簡의 竹簡 1매 길이는 16.2cm 정도로 漢나라 시기의 尺으로 따지면 약 7촌이다.

당시 中國의 論語 木簡이 8촌 길이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定州市 論語 竹簡이나 平壤 貞栢洞 論語 竹簡 모두 당시의 論語 木簡 규격을 그대로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촌의 오차는 木簡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진행된 탈수와 수축 현상에 따른 변형으로 볼 수 있다.

論語 竹簡이 출토된 平壤市 貞栢洞 樂浪區域 일대는 古代 樂浪郡의 중심 지역이었다. 더구나 平壤은 竹簡의 소재가 되는 대나무가 생장할 수 없는 환경이다.<sup>14)</sup> 竹簡은 중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서사 재료다.<sup>15)</sup> 그리고 竹簡이 출토된 貞栢洞 364호분에서는 樂浪郡 현지에서 제작된 물건 이외에도 中國 본토에서 제작된 유물이 다수 출토됐다.<sup>16)</sup>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貞栢洞 364호분에서 발견된 이 論語 竹簡은 樂浪郡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中國 본토에서 제작되어 樂浪郡으로 유입된 것이 확실하다.

#### 5. 한반도에서 발견된 論語 木簡

문헌 기록을 보면 高句麗·百濟·新羅에는 모두 太學 혹은 大學이라 불리는 國立 교육기관이 있었다고 한다.<sup>17)</sup> 이 기관들은 왕권을 수행하기 위한 관료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여기서 교육을 받은 지배층의 子弟는 관리로 출사했다. 그리고 太學 교육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것이 儒學이었다. 물론 이러한 교육제도 또한 中國에서 들어온 것으로, 中國에서는 이미 西周시대부터 이와 같은 교육기관이 출현해 漢 武帝 때에 이르면 본격적인 학교 제도로서 확립된다.

高句麗·百濟·新羅는 4세기 무렵 저마다 律令이라는 法 체계를 수립하고,<sup>18)</sup> 律令에 바탕을

13) 河北省文物研究所, 「河北定縣40號漢墓發掘簡報」, 『文物』, 1981-8 ; 國家文物國古文獻研究室·河北省博物館·河北省文物研究所, 「定縣40號漢墓研究竹簡簡介」, 『文物』, 1981-8.

14) 대나무는 습기가 많고 열대지방에서 생장한다. 한반도에서는 남부지역이나 제주도에서 생장된다. 평양은 대동강을 끼고 있어 습기가 많을 수는 있지만, 열대지방에 속하지 않는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平壤에서도 대나무가 자란다고 하지만, 論語 竹簡이 작성된 시점을 생각한다면 平壤에서 대나무가 생장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木簡을 대나무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대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쉽게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현재 한반도에서 발견된 竹簡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 가장 빠르다. 한반도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木簡은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자생하는 소나무가 사용되었다.

16) 平壤 貞栢洞 364호분에서 발견된 유물은 무기류(環頭刀子, 鐵長劍, 鐵矛), 거마구(車軸頭, 日傘), 농공구(鐵斧, 鐵鎌, 鐵鑿), 장신구(구슬, 띠걸이, 비녀, 은반지, 나무빗, 화장용 솔), 토기(화분형토기, 배부른단지, 회백색단지), 각종 漆器 등이 있다(김경삼, 2009, 『락랑일대의 무덤-나무관 및 나무곽무덤』, 진인진, p.65 표7). 이 유물 중 일부는 中國(漢나라)에서 유입된 것도 상당수 존재한다.

17) 太學이라는 용어는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惠恭王 元年, “大赦 幸太學 命博士講尚書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大學이라는 용어는 高句麗는 小獸林王(『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小獸林王 2年, “立大學 教育子弟”), 新羅는 聖德王(『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6年, “秋九月 入唐大監 守忠廻 獻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圖 卽置於大學”) 시기에 나오고 있다. 百濟는 大學 혹은 太學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교육기관이라는 점, 강의를 했다는 점에서 『日本書紀』에 기록된 五經博士의 과견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당시 百濟에도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18) 高句麗는 小獸林王(『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小獸林王 3年, “始頒律令”), 新羅는 法興王 시기에 律令을 제정했다(『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7年,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

둔 새로운 지배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律令은 곧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法 체계로서 이를 통해 高句麗·百濟·新羅의 왕권은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律令에 기초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儒學的 소양을 지닌 관료 양성이 필수였고, 곧 太學은 律令 체제 구축을 위한 인재 양성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高句麗·百濟·新羅에서 論語를 학습했다고 보이는 사례는 문헌 이외에 고고학 자료인 木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8세기의 한반도는 木簡과 종이가 함께 사용되던 紙木並行期로, 대다수의 木簡이 이 시기에 제작되었다. 그중 인천 계양산성과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발견된 論語 木簡은 6~8세기 무렵을 살았던 고대인들의 論語 학습 흔적이다.<sup>19)</sup> 이들 論語 木簡은 新羅人이 만든 것으로, 당시 新羅에서 論語가 널리 읽혔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이 論語 木簡의 크기와 형태가 주목된다.

인천 계양산성에서 발견된 목간은 5면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고, 김해 봉황동에서 발견된 목간은 4면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 두 木簡 모두 여러 면에 글을 쓴 多面 木簡으로, 상·하부가 부러져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木簡에 쓰인 글자는 명확하게 관독할 수 있다. 2점의 論語 木簡에는 論語 公冶長 편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木簡의 원형을 복원해보면 원래 길이는 약 130cm 전후로 생각된다.<sup>20)</sup> 中國에서는 사람들이 論語를 쉽게 휴대해 읽을 수 있도록 18cm 정도 길이(약 8촌)의 木簡에 論語를 기록한 編綴簡 혹은 篇目を 기록한 木簡을 사용했지만, 인천 계양산성과 김해 봉황동 출토 목간은 약 130cm 전후의 길이에, 多面에 걸쳐 論語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論語 木簡은 휴대용 木簡으로 보기 어렵다.

약 130cm 정도의 큰 論語 木簡은 中國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기에 中國의 사례를 통해 木簡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고대 日本 木簡의 사례를 통해 이 커다란 木簡의 용도를 추측해 볼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日本에서는 지금까지 30여 점의 論語 木簡이 발견되었다. 日本에서 발견된 論語 木簡은 新羅에서 제작된 論語 木簡보다 대략 한 세기 정도 늦게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도 약 130센티미터 정도 되는 論語 木簡이 발견되었는데, 이 木簡들은 관청 등의 관공서에 세워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짧은 竹簡을 여러 개 묶어서 만든 中國의 論語 編綴簡이 휴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반도와 日本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1미터가 넘는 길이의 木簡에 4면 혹은 5면에 걸쳐 빼곡하게 論語를 기록하고 있는 木簡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즉 1미터가 넘는 거대한 木簡은 지방의 학교나 관청에서 論語를 학습 혹은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마치 오늘날의 칠판이나 커다란 교보재와 같은 기능을 했던 교육용 木簡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다란 木簡에 論語의 특정 章句를 한 번에 모두 새겨 이제 막 학문의 길에 들어선 초학자가 그 특정 구절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초보 학습자를 위한 맞춤 교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용도에

---

秩”). 百濟는 직접적으로 律令을 반포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高句麗와 新羅에 律令 반포가 있었기에 百濟만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古爾王 27年(『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에 의하면 6佐平의 확립과 16官等の 제정, 服色제정이 시행되고 있다. 新羅 法興王 7년에 律令과 함께 百官公服이 제정되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古爾王 시기에는 律令이 百濟에도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19) 발굴 보고자에 의하면 인천 계양산성 출토 목간은 5세기 백제인이 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같이 발굴된 공반 유물과 계양산성을 축조방식을 살펴보면 7~8세기가 더 합당해 보인다.

20) 김해 봉황동 목간은 대략 125~146센티미터 안팎으로, 인천 계양산성의 것은 약 133센티미터로 추정된다.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다란 木簡에 새겨진 論語의 글귀를 읽고 또 읽으며 학구열을 불태웠을 것이다.

한편 충청남도 부여군 쌍북리에서도 百濟 시대의 論語 木簡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木簡은 앞서 살펴본 新羅의 論語 木簡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쌍북리 論語 木簡에는 論語의 첫 篇目인 學而 篇이 기록되어 있으며, 木簡의 크기도 28cm로 中國 戰國時代 尺을 기준으로 한다면 1척 2촌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자면 앞서 살펴본 新羅의 論語 木簡과 비교해 그 내용과 크기(길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木簡의 형태를 보면 이 木簡은 여러 개의 木簡을 編綴하여 책으로 만든 編綴簡 형식이 아니다. 또 인천 계양산성이나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기다란 木簡에 글귀를 새겨 학습의 편의를 높인 교육용 및 시각용 木簡도 아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論語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베껴 썼던 이른바 ‘習書用 木簡’이다. 우리도 공부를 시작할 때 책의 첫 장을 가장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처럼 당시 이 木簡에 글씨를 쓴 百濟人도 論語의 첫 篇目인 學而 篇을 열심히 반복해 썼던 것으로 보인다. 論語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百濟 시대에 작성된 木簡 중에는 연습장처럼 사용한 木簡(習書한 木簡)이 다수 발견되어, 木簡이 연습장 대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百濟에서 論語 구절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이 木簡이 발견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약 1,500여 년 전 百濟人들이 論語 木簡을 보면서 論語를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막 論語 木簡을 통해 공부를 시작한 초학자의 노력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6. 맺음말

古代 한반도에서 발견된 論語 木簡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論語는 孔子의 생전 언행을 담은 책으로, 儒學 사상의 요체가 담겨 있다. 즉 儒敎의 소양을 쌓기 위해 論語 학습은 필수적이었으며, 따라서 論語의 수용은 곧 儒敎 수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古代 三國(高句麗·百濟·新羅)은 모두 儒敎를 일정 부분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律令을 반포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 이처럼 論語를 필두로 한반도에 전파된 儒敎 사상은 古代 三國(高句麗·百濟·新羅)이 律令 국가로 나아가고, 국가 통치의 핵심이 되는 文書 行政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오랜 시간 땅속에 잠들어 있던 古代의 論語 木簡과 竹簡은 비단 中國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日本에서도 발견된다. 지금까지 韓·中·日 삼국에서 발견된 수십만 건의 고대 木簡 자료 중 論語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典籍 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中國 문화를 수용해 우리 문화로 정착시키고 다시 日本으로 전파하는 古代 동아시아 漢字 문화권의 교류 네트워크가 論語 木簡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다.<sup>21)</sup> 孔子의 말에서 시작된 儒學의 가르침은 작은 나뭇조각에 적혀 한반도와 日本으로 전해졌고, 그렇게 동아시아 세계는 2,000여 년에 걸쳐 ‘공자님 말씀’을 우러르게 됐다.

21) 漢字文化圈에 대해서는 漢 武帝 시기 郡國學의 설치와 公孫弘이 유가적 통치이념(道)이 침체한 것을 한탄하며 상서한 내용 중 “교화를 시해하려면 (천하의) 본보기를 세워 京師부터 시작하여 안 [內]에서 밖[外]으로 이루게 해야 한다(『漢書』卷88「儒林傳」p.3596, “公孫弘爲學官 悼道之鬱滯 內請曰…… 故教化之行也 建首善自京師始 由內及外”)”는 구절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漢字이며, 그 세부 항목으로 論語를 찾아볼 수 있다.